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1. 18 (금)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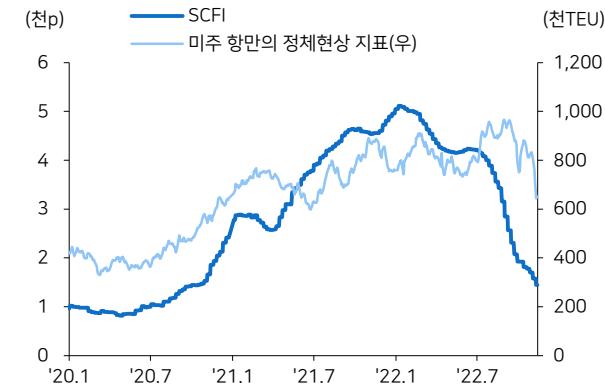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28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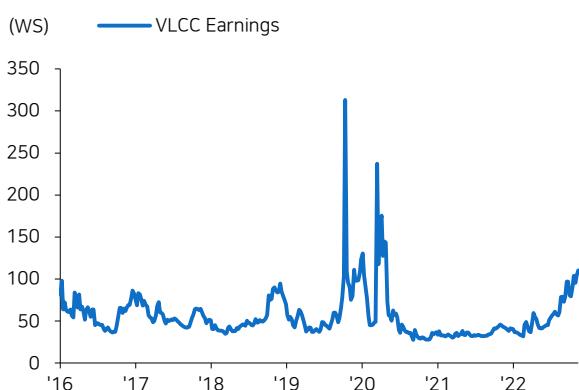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43.3p(-135.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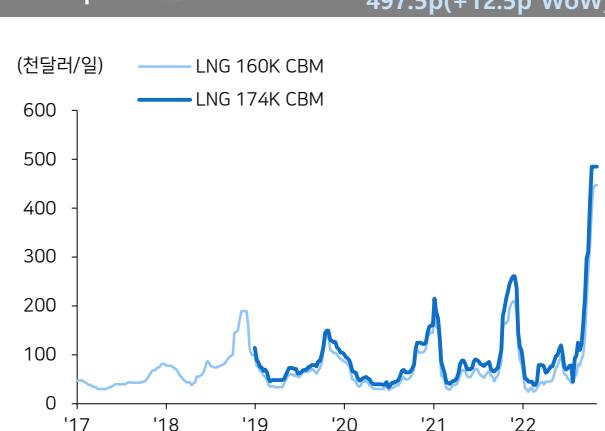
VLCC Spot Rate

110.1p(+5.8p WoW)



LNG Spot 운임

447.5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3p WoW)  
164.5p(-7.7p WoW)

항공시장 지표

248.5p(-)  
93.5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오른다…유가변동에 '냉·온탕' 반복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시 오른다고 보도됨. 대한항공은 11월 대비 1,500~12,000원 비싸진 34,500원~256,500원 수준이라고 언급됨. 11월대비 1단계 상승한 15단계가 적용된다고 알려짐. (뉴시스)

### COP27 결의문 초안 "1.5도 목표 유지"…'손실과 피해' 보상 방안과 시간표는 제시 안돼

COP27 폐막을 하루 앞두고 결의문 초안이 공개됐다고 보도됨. 초안에는 지난 COP26에서 합의된 석탄의 단계적 폐지만 포함, 석탄 외 석유, 천연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언급되지 않음.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올해 COP27의 핵심 정점이었는데, 원론적인 언급에 그침.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도 유지되었다고 알려짐. (경향신문)

### Eni picks contractors for fourth Africa FLNG vessel

Eni가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4번째 FLNG 업체를 Saipem으로 선정했다고 보도됨. 해당 FLNG는 약 7조큐빅피트의 가스가 발견된 Congo-Brazzaville Marine XII 부지에서 사용될 예정임. 천연가스는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임. 한편, Saipem은 중국 Wilson Offshore & Marine과 EPC계약의 기초가 되는 'advanced price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Upstream)

### How many tankers could be pulled into sanctioned Russian trades? 56 or 100 or 178 Vortexa says

Vortexa에 따르면, 12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시작 시 50척 이상의 원유운반선이 러시아 교역항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현재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56척은 러시아 교역항로로 손쉽게 넘어갈 것이고, 46척도 추가될 수 있음. 기존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 선대 40척도 감안해야함.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선대의 러시아항로 전환율은 50% 이상으로 판단, 총 178척이 그림자선대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현대산업개발 상대 소송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500억원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법원이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됨. 이와 함께 현산과 미래에셋은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각각 10억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경향신문)

### CJ대한통운, 미국 통합법인 운송자회사 '리브랜딩'…"글로벌 사업 강화"

CJ대한통운은 미국 통합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의 운송자회사 브랜드 이름을 'GN 트랜스포테이션'에서 'CJ 로지스틱스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변경하고 운송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보도됨.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은 인수한 'DSC 로지스틱스'와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USA'를 합병해 미국 통합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를 출범시킨 바 있음. 2021년에는 미국 통합법인 브랜드를 'CJ 로지스틱스'로 통합함. 리브랜딩을 통해 다양한 국제 물류서비스를 고객사에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